



## S&P500 2023년 최대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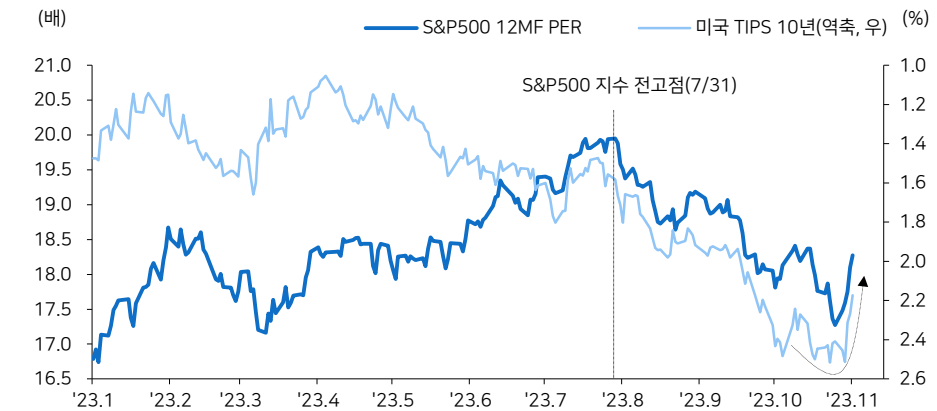
지난주 S&P500은 전주대비 5.9% 상승, 주간 기준 2023년 중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 올해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0년래 금리와 가장 높은 역상관 관계 나타나는 중(2024년 연간전망 선진국 투자전략: Hold a Barbell 발췌). 특히 7월 31일 연고점 이후 시장 조정은 완전히 금리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중에서도 TIPS로 나타나는 실질금리가 2%를 상회한 이후 금리 우려는 계속 격화되었음

지난주 미국 TIPS 10년 금리는 전주대비 24bp 하락, 2023년 중 가장 큰 주간 낙폭 기록하며 주가 밸류에이션 우려를 덜어주었음. S&P500 12MF PER은 17.2배까지 하락했다가, 금리 하락 이후 18.2배까지 반등

금요일 미국 10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대비 15만명 증가하는데 그치며 시장기대(18만) 하회. 제조업 고용 3.5만명 감소분 중 UAW 파업에 따른 일시적 실업인 자동차/부품 업종 3.3만명 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8, 9월 신규 고용도 도합 10만명 하향조정되며 노동시장 둔화 시그널 확인. 여기에 실업률 상승, 임금상승률 둔화까지 시장 우려를 덜며 5%를 상회하던 미국채 10년 금리가 4.58%까지 하락하는데 일조

증시 변곡점이 나타난 배경은 11월 2일자 데일리 코멘트(Meritz DM: 맞아떨어진 삼박자)에서 언급했듯 조정을 유발했던 1) 채권 수급, 2) 경기, 3) 통화정책 우려가 동시에 완화된 영향. 3일 고용에 ISM 서비스업 둔화까지 2)에 대한 우려를 추가 완화. 이제 '소비'만 둔화되면 엇갈려있던 지표들이 모두 정배열 되는 셈

그림1 S&amp;P500 12MF PER과 미국 TIPS 10년(실질금리)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